

# 10만 연등, 종로를 물들이다

# 온누리에 퍼진 '자비의 법음'

### 7일, 동국대-종로일대서 제등행렬 8일은 우정국로서 '불교문화마당'

서울 종로거리가 10만 연등물결로 잠입했다. 지난 7일과 8일 서울 동국대와 종로거리, 조계사 앞 우정국로 등지는 불자와 서울시민, 외국인 등 30여 만명이 참가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인 연등회(연등축제)가 열렸다. ▶**관련화보 10·11면**

지난 7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된 연등회는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을 통해 10만 여개의 등 물결이 동국대와 동대문에 이어 종로거리를 휘감으며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연등행렬은 사천왕과 코끼리, 용, 거북선, 헬리콥터 등을 형상화한 각종 장엄물이 선두에 섰으며 5만여 명의 불자들이 행렬등을 들고 그 뒤를 따르며 부처님오신날의 참된 의미를 내외국인과 함께 되새겼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사용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뽀로로등'과 '토마스기차등'은 이미 철거해 이날 연등행렬에 선보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등행렬에 이어 종각사거리에서 열린 '희향한마당'에서는 불자와 시민, 외국인 등 30여 만명이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어 대동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됐다. 둘째날인 8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 일원에서 100여 개의 부스를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불교문화마당'을 비롯해 '공연마당'과 '연등놀이' 등이 잇따라 마련돼 축제분위기를 이어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7일 어울림마당에서 대외사를 통해 "이렇게 좋은 날, 가장 밝고 아름다운 등불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신명나는 몸짓으로 나와 남, 우리와 이웃, 사회를 밝게 비추는 광명의 한 발 한 발을 내딛자"고 당부했다. 봉축위원회의 어울림마당에서 장엄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갖고 한마음선원에 최우수상을, 수국사와 도선사에 우수상, 진관사와 관음중, 강남포교원 등에 장려상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7일 연등축제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가했으며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8일 불교문화마당을 찾았다. 박인택 기자



지난 7~8일 서울 종로거리는 10만 연등과 사부대중 수십만명의 웃음과 환호가 넘쳐났다. 김형주 기자



### "봉축행사 원만회향 협조에 감사"

총무원장 스님, 조현오 경찰청장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등축제가 원만하게 회향하도록 협조해준 조현오 경찰청장(사진 오른쪽)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0여 만명이 참가한 서울의 연등축제 뿐만 아니라 지방 200여 개의 도시에서 진행된 봉축행사가 많은 경찰관들의 협조로 원만히 진행돼 감사하다"며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현오 청장은 "국민적 축제가 잘 진행돼 기쁘다"면서 "특히 많은 외국인의 참여에 놀라웠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외국 불교대표단 총무원 예방

연등회(연등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러시아연방 칼미크공화국 불교대표단과 중국 불교대표단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했다.

러시아 연방 21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칼미크공화국은 인구 30여 만명 가운데 약 80%의 국민이 불교를 신봉하는 유럽 내 유일의 불교국가다. 칼미크공화국 불교대표단장인 칼미크공화국 불교 최고 지도자인 텔로 톨쿠 린포체는 "한국과 칼미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먼 나라이지만 부처님 제자라는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칼미크를 방문해 주셔서 소년 해체 후 새롭게 불교를 일으키고 있는 칼미크 불교에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

다"고 공식초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칼미크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함께 장건영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부국장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스님 등 중국불교대표단 10여 명이 지난 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했다. 장건영 부국장은 "19년째인 한중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양국 불교계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우호선린관계가 더욱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한중일불교교류대회에서 보여준 환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호관계가 더욱 더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범석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불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한국불교를 만들 것인가?'  
'한국불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중흥이라는 큰 화두를 설정하여 사부대중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중흥이란 한국불교가 '시대와 중생계에 부응하며 자비를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생계의 혼란과 고통을 자신의 중심적 문제로 삼는 것이며, 불교를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꽃피우고, 인류사회의 큰 가르침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세계문명의 흐름을 잘 알아야 그 내용과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 해답의 모색을 위해 종단의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매달 1회씩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와 전문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모두 모여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문수보살의 대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5월 대토론회

- 주 제 :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와 한국불교
- 발제 및 토론
  - 사회자 :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자 :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 토론자 : 학담스님(대승사 주지), 법타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윤여준(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이승환(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 일 시 : 불기2555(2011)년 5월 25일(수) 14:00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02-2011-1810)

## 불기2555(2011)년 진행 일정 및 주제

월	주 제
1. 27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
2. 23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
3. 30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 종단 5대 결사를 중심으로
4. 27	생명-생태문제와 한국불교
5. 25(수)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와 한국불교
6. 29(수)	사회정의 실현과 불교의 자비실천 발제자 : 박병기(한국교원대 교수)
7. 27(수)	
8. 31(수)	
9. 28(수)	7~12월 대토론회 주제는 추후 확정 후 공고 예정
10. 26(수)	
11. 23(수)	
12. 21(수)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상기 내용은 종단의 주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제에 따라 1박2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토론회 당일 실시간으로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와 미디어넷(http://www.mediabuddha.net/)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불기2555(2011)년 5월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자 승

## 부처님오신날 후원금 전달

농협 2000만원...신한은행 1000만원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에 봉축후원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봉축기금 2000만원을 전달(사진)했다. 최원병 회장은 "조용히 기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에서도 상을 내지 말라고 하지만 이같은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자비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면 더 의미가 클 것"이라며 "전해주시는 기금은 봉축행사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배석한 총무원 재무부장 성월스님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 유통망에 '산은 산이요, 물은 감(甘)이로다'를 납품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최 회장은 실무진을 보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용병 신한은행 부행장은 지난 9일 한국불



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써달라며 1000만원의 봉축후원금 전달했다. 조용병 부행장은 "은행에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데 불교계와도 공동으로 여러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로터스월드 등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와 신한은행이 좋은 인연을 맺어 활발한 해외원조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